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연속 기도회가 3월 23일(월)~4월 4일(토)까지 있습니다. 미리 시간을 조절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 사랑방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주제 : 사랑방공동체학교 교육철학과 가정의 동행
- 사랑방공동체학교 후원회 총회가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 이번 주부터 성서일기 본문이 열왕기상으로 바뀝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 나눔의 식탁 : 한미선 집사 (감사)
 김영희 권사 (감사)
 김영화 권사 (감사)
 윤호중 · 하경임 집사 가정 (공동생활참여 1년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1 호
 2026년 3월 1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순절의 정의와 유래, 정신

사순절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넉 사, 열흘 순, 마디 절)로 40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에서 유래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의 기간으로 날짜 수로는 46일입니다. 6일 차이가 나는데 금식과 고난의 묵상을 함께 하기에 하나님의 날이었던 날, 현재의 주일이 6번이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신 날로 일하지 않고 쉬는 하나님이 날이였기에 제외하여 40일을 정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수요일의 재의 수요일로 부릅니다. 불태우고 나면 남는 '재'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든 후에 그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게 됩니다. 재는 인간이 흠에서 와서 다시 흠으로 돌아간다는 겸손의 의미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에서부터 사십육일을 헤아립니다. 부활절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때에 결정된 기준은 "춘분 이후 첫 만월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유월절 절기 중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로 부활절을 결정할 때에 유대인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중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력 니산월 15일일에 시작됩니다. 니산월은 봄이 시작되는 달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을 포함합니다. 니산월은 태음력으로 14일이 보름입니다. 유월절 시작은 니산월 15일이므로 춘분이 지난 후 보름달이 뜬 다음날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 중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춘분이 지난 후 첫 보름달이 뜬 후 일요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춘분은 매년 3월 21로 일정하지만 만월이 되는 날이 해마다 달라 부활절의 날짜가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jskang4u/223399429731>]

중세 유럽에서는 사순절 동안에 육식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음식으로 해산물(청어, 홍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교차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유래된 프레첼(Pretzel)을 먹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트르 브리헬은 "사순절과 사육제 사이의 싸움"그림으로 사순절을 풍자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오르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소장]

이 기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금식, 기도, 자선, 회개, 세례 등을 깊게 생각합니다. 우울하게 사순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고난을 지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사랑방 공동체에서는 이 기간에 연속기도회를 하고 목요 세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겉모습을 고난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5일 부활절까지의 날을 계수하면 95일이 됩니다. 새해 시작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매 해의 시작과 초반에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한해의 시작과 함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 3개월을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사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사순절의 중반에 접어들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방 공동체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을 잔잔한 가운데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에겐남’으로 살아남기

한주간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89, 292 / 432
 기도 : 진정행 권사
 성경 : 사도행전 27장
 제목 : 험난한 복음의 여정

1. 내용: 로마행 항해에서 당한 어려움 (What)

<문단구분>

- 1~11절 <로마행 항해의 시작>
- 12~20절 <희망을 잃어버린 선원들>
- 21~26절 <바울의 격려>
- 27~44절 <난파와 조난>

2. 의미: 어려울 때 신자의 역할 (Why)

- 1) 하나님의 일에서는 믿는 자들이 주도한다.
- 2) 복음의 사역은 어려움 중에도 꺾이지 않는다.
- 3) 함께 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이르게 하였다.

3. 적용: 하나님을 신뢰하자. (How)

- 1)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자.
- 2)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자.
- 3)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어릴 때는 참 말이 없었다. 명절을 맞아 경기도 연천에 있던 큰집에 방문할 때면 어른들로부터 왜 그리 말이 없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아들 시온이가 날 닮았는지, 학교에 다니면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는 하도 말이 없어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아내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는 어디 아픈 게 아니고, 원래 말이 없어요”라고 말씀드려야 했다. 또 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온이가 엄마랑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시온이가 하는 말, 처음 들어요”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사실 시온이는 학교에 다녀와서 학교에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수다스럽게 들려줬다.

대학 시절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내가 말이 없는 과묵한 사람이라서 좋았다고 나중에 알려줬다. 내가 사내답다고 생각했을까.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필요한 말만 했던 것 같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게다가 누군가를 새로 만나 말하는 것도 어려워했던 것 같다.

요즘은 다정하게 말하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요리도 잘하는 남자가 인기라고 한다. 이른바 ‘에겐남’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자란 단어를 조합한 신조어다. 반대로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여자는 ‘테토녀’라 불린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자가 결합한 신조어다. 이렇게 보면 에겐남과 테토녀는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무뚝뚝한 테토남으로 살아왔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인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훌쩍이는 일이 많아지고, 덩달아 하고 싶은 말도 많아졌다. 그래서 요즘은 TV를 같이 보다가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하다 핀잔을 듣는 경우도 늘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드러운 언어 생활’이 쉽지 않다. 강제로 에겐남이 된 요즘,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순절 기간, ‘침묵 기도’라도 해야 할지 고민된다. 물론 필요한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늘어 테토녀가 된 아내한테 한 소리 듣지 않으려면.

비움사랑방 이충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133 : 1-3 인도자
20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다함께
278, 286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실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정재훈 목사

사도행전 2 : 40-47 설교자
268 미리내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220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다함께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봉헌위원 : 임진숙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교회의 시작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찢려 회개한 삼천 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시작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위로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긴박한 사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악한 본성을 벗어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심의 회복 신앙은 삶에 덧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전 인격이 변화되는 인생 초유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배척 속에서도 기쁘게 모여 떡을 떼며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신앙이 내 삶의 부수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점검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강춘자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귀락마을 산책을 다녀왔어요. 장 권사님 도움을 받아 고속도로 위 공원에서 출발해서 종말까지 걸어왔어요. 송아지 하온이랑 다운이는 앞서가며 달리는 걸 좋아하고 호랑이 나옴이도 잘 걸어요. 중간에 입에 넣어준 새콤달콤한 조각이 너무 맛있어서 살살 녹여먹었어요.

나옴이 생일이었어요. 꾸러기 수가 적어 생일잔치가 허전하면 어쩌나 준비하는 마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어느새 썩 크고 힘도 세진 송아지 언니들은 꽃가마도 잘 만들고 꽃마차도 이불썰매도 잘 밀고 끌었어요. 부모님들의 날으는 양탄자와 꾸러기들의 춤 그리고 축하 받는 나옴이의 행복한 표정과 당당한 하이파이브로 꽉차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냉이를 깎어요. 이근자 사모님께서 곧 꽃대가 올라올 것 같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저쪽이 냉이밭이라고 알려주셔서 일정을 당겼어요. 덤불 때문에 처음엔 찾기 어려웠지만 흙이 부드러워 꾸러기들 호미질에도 긴 뿌리가 썩 올라왔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서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로 풀기로 약속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꾸러기들이 애쓰고 있고 서로 마음을 알고 있어요.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다양한 경험 가운데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 친구들과 3월 여행을 2박3일 동안 단양에 다녀왔습니다. 풍경에 시가 줄줄 나올 것 같은 도담산봉, 박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고수동굴, 손님들이 없이 우리가 독차지하며 놀았던 오션플레이 수영장, 빛의 놀이터 팝스월드, 학년과 함께 시장구경하며 먹었던 맛난 점심, 차 안에서 도란도란 나누었던 얘기들은 또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함께 밥도 해먹고 · 함께 놀고 즐기고 · 함께 잠을 자며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엔 1학기 회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회장 김주은 어린이, 총무 최리야 어린이, 서기 한서연 어린이가 한 학기를 이끌어 갈 회장단입니다.

토요일엔 회장단과 리더십 훈련을 가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대화의 기술, 자존감 대화법' 영상을 보며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어린이들의 애기에 경청하며 서로 도와주며 이끌어 가겠다." 고 한 공약처럼 잘 이행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의 생활도 주님의 섭리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정규 시간표대로 보내는 첫 주간이었습니다. 신입생이나 선배들, 선생님까지도 생활 사이클과 수업에 적응하며 보낸 기간이었습니다. 부서, 동아리, 식사당번, 섬김이 등 이번 학기를 함께 감당할 모둠도 거진 정해졌습니다. 방학이 끝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집이 많이 생각났지만, 맛있는 밥과 간식을 먹으며 그런 마음들을 달래봅니다.

공동심화학습 첫 주제는 <보드게임-상상이 규칙을 만날 때>로 시작했습니다. 규칙을 배우며 재미있게 놀면서도, 이후 규칙을 만들어 낼 때가 기대됩니다. 열린수업에서는 항상 먼저 다뤄지는 멋쟁이 교양을 배웠습니다. 또한 친구 학생회 임원단과 5학년은 금요일 오후에 리더십 트레이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지며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낮밤으로 일교차가 매우 큼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며, 힘을 내어 멋진 학교생활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이어진 >

마음의 나이 방년 20세

요즘 내 관심사 중의 하나는 나이.

언제부터인가 내 몸이 이전의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예를 들면 가끔 휘청거린다거나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관절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하고 두통약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뜻하지도 않은 검사를 받기도 하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분명히 어딘가에 잘 둔 물건을 한참이나 찾아 헤매기도 하는 등. 전에는 절대 없었던 일들이 생기면서 위기감을 느낀다. 먹는 것에 진심인 나는 양보다 질에 신경을 쓰면서 정말 건강식을 하려하고 소소하게 운동도 하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인터넷에 나이별 재미있는 호칭이 있던데. 15세 지학-학문에 뜻을 두었다, 16세 과년-혼기에 이른 여자 나이(요즘은 말이 안 되지만), 20세 약관-남자 나이 20세, 여자인 나이 20세는 방년 꽃다운 나이, 40세 불혹-미혹되지 않는 나이, 50세 지천명-하늘의 뜻을 알고 깨닫는 나이, 60세 이순-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 70세 종심-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도에 어그러지지 않는 나이, 77세 희수-기쁨 희자가 더블인 나이, 80세 산수-한자 우산산자의 산을 나누면 팔십이 된다고 함, 90세 졸수, 91세 망백-100살을 바라본다, 99세 백수-한자 일백 백에서 一을 빼면 흰 백자가 된다, 100세 이상의 나이-상수.

이 호칭들을 보면서 후반을 향해 가는 나를 보니 물리적인 나이는 그렇다 해도 마음의 나이는 방년 20세이고 싶은 것은 바램이지만 할까? 아직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체력이 못 미칠 때가 있다.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있는데 이제부터 새롭게 마음을 먹고 더 알차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친구들을 만나면 농인 듯 진심으로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내 발로 걸어 다니자'라고 말하곤 한다.

내게 주어진 삶 동안 사랑방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건강히 지내게 해 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근자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293장, 391장

성 경 : 에스더기 9장 20절~32절

말 씬 : 부림절의 유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전쟁을 위해>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바다 길에 기뢰를 설치, 폭파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각 공동체의 교육과정을 위해>
각 공동체에 여러 교육과정이 있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해 잘 시작해서 공동체와 사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잘 준비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1) 어린이학교 여행 중: 즐거운 시간과 잘 돌아 올 수 있도록
 - 2) 학부모 교육과 학교 후원 이사회를 위해
 - 3) 사순절을 지내는 교인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사랑방학교들의 본격적인 학교생활의 시작으로 공동식구들도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식사도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서 고되지만 활기를 띄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 밭을 정리하고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썩과 냉이가 나오는 계절이 되어 공동체의 화단도 곧 초록빛으로 덮일 것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